

5/4(화) 다니엘 묵상 14

다니엘 3:8-1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모든 지역의 관리들을 불러 낙성식을 열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에서 잡혀 온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킨 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시 엄벌을 내리겠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단 3:6, “누구든지 **앞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러한 명령에 대해 그 누구도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 왕의 어명을 거절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A.D. 605년경,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남유다 1차 공격 때에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그 지혜와 총명함을 인정받아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한 인재로 선발되어 삼년간 왕궁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왕궁 교육을 마친 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인해 세 친구들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세 친구들은 바벨론 각 지방의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단 2:49,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드시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말씀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절친한 친구이자 믿음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친구들을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8절,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서 ‘참소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먹다, 삼키다, 태워버리다’라는 뜻으로 일부 갈대아인의 이러한 행위가 악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외에 다니엘이 고소를 당하지 않은 것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그가 공무상의 출장 중이었거나 또 다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히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때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고자 했습니다(15절,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서 우리는 당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그의 말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당연히 복종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 친구들은 왕의 위협에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서 “이 일”은 반포된 칙령에 대한 조서를 말하는 것으로 세 친구들은 그러한 명령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게 됩니다. 세 친구들이 용감하게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숨을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는 그들의 목숨을 만약 잃게 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 만은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같은 고백은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죽음을 담보로 신앙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손해보고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나라의 백성이기에 겪고 살아가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며 또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규범이고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령,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성에 대한 자유가 만연합니다(예, 동성애, 간음, 간통 등등). 이로 인해 크리스천들도 혼란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대한 간음, 간통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만을 창조하셨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성경구절 참고). 이러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소수로서 바른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비성경적인 정책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 혼란함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 교회의 EM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중국 김기원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구절>

구약성경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찌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3:17-18)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찌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열왕기상 14:24)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5: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열왕기상 22:45-46)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편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 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男色)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열왕기하 23:7)

또 여호와와 성전 가운데 남창(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욥기 36:13-14)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男娼)과 함께 있도다”

신약성경

(로마서 1:26~27)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9-1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1: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유다서 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